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306.7	15.6	131,500	0.8	2.7	-5.1	2.3	91.6	43.9	0.6	0.6
현대중공업지주	5,879.5	21.5	361,000	-0.8	3.4	-3.3	4.3	4.9	4.1	0.6	0.6
현대엘렉트릭	618.9	5.5	30,400	-4.3	-2.9	9.2	36.9	2.9	2.5	0.3	0.2
현대건설기계	1,059.9	8.7	53,800	-4.3	-3.8	12.4	26.0	3.4	2.5	0.4	0.3
삼성중공업	5,770.8	18.6	9,160	-0.9	3.3	19.0	23.6	57.8	28.7	0.6	0.5
대우조선해양	3,387.7	10.8	31,600	-0.8	-6.5	-7.9	-7.5	11.0	15.6	0.9	0.9
현대미포조선	2,484.4	12.9	62,200	0.6	4.9	10.6	3.7	13.4	9.7	0.5	0.5
한진중공업	126.2	3.7	1,190	0.0	N/A	N/A	-28.1	239	6.0	0.2	0.2
현대엘리베이터	2,588.2	20.1	95,300	-18.5	-19.6	-7.9	-10.9	16.8	164	2.3	21
두산밥캣	3,197.9	25.8	31,900	-0.2	-5.2	-3.2	1.3	11.7	11.0	0.9	0.9
현대로템	2,201.5	3.1	25,900	-12.2	-8.8	-11.3	-7.0	334	228	1.5	1.4
하이록코리아	245.0	47.2	18,000	-1.9	-6.5	2.9	9.4	8.1	7.5	0.7	0.6
성광밴드	297.4	15.4	10,400	-2.3	-8.8	-12.2	-8.8	919.3	37.3	0.7	0.7
태평	275.6	11.7	10,400	-2.8	-14.0	-19.8	-11.1	62.1	30.3	0.6	0.6
두산중공업	970.0	8.4	8,280	-1.9	-25.7	-29.5	-14.9	-21.5	8.6	0.3	0.4
두산인프라코어	1,584.1	17.6	7,610	-2.8	-12.2	-11.3	0.3	5.2	5.4	0.8	0.7
HSD에프진	154.7	3.6	4,695	-2.7	-10.6	-10.7	-11.1	-12.3	-11.3	0.7	0.7
한국항공우주산업	3,587.1	15.3	36,800	-2.3	9.4	13.6	15.4	53.7	26.9	3.3	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14.7	14.6	32,950	-2.1	7.2	2.6	1.4	136.5	25.3	0.7	0.7
LIG넥스원	856.9	8.8	38,950	-4.1	12.7	10.3	5.4	81.0	24.2	1.9	1.8
태웅	215.1	4.6	10,750	-5.3	-3.2	1.4	2.4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31.5	3.9	8,580	-0.7	6.1	6.8	11.1	-17.0	32.9	3.3	3.2
한국기본	349.5	14.3	7,950	-2.2	6.3	12.7	12.9	123.8	23.6	1.1	1.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130p, 중고선가 98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 중고선가 지수는 98p로 전주와 동일함. 대우조선해양은 Maran Gas에서 17.4만CBM급 LNG선 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됨. 싱가폴 Sembcorp Marine은 일본 Mitsui OSK에서 1.2만CBM급 LNG벙커링선 1척을 수주함. (Clarksons)

Heavyweights in ring for Shwe 3 FEED contest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Shwe Phase 3 프로젝트 FEED 입찰을 준비 중임. 포스코대우는 2018년 말 사전입찰 브리핑에 Aker Solutions, KBR, McDermott, 국내 조선 3사 등을 소청함. 입찰은 3월 8일 마감, 20년 4월까지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선정된 업체는 2019년 초부터 3년간 EPCI를 수행할 계획임. (Upstream)

ExxonMobil makes formal approach to shipyards for eight-unit LNG carrier order

ExxonMobil은 LNG선 8척 발주를 위해 조선사에 접촉했다고 알려짐. 발주처는 22년 1분기 인도를 목표해 올해 발주를 할 계획임. 발주는 파푸아뉴기니 PNG LNG 프로젝트 확장에 필요한 발주로 알려짐. Exxonmobil은 이외에도 모잠비크 Rovuma LNG, GoldenPass LNG에 필요한 선박도 발주할 계획임. (TradeWinds)

Chinese buyer breathes life into VLEC newbuilding sextet

중국 에탄 구매업체 Zhejiang Satellite Petrochemical(STL)은 미국 Delos Shipping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각 3척씩 발주했던 VLEC 소유권을 취득함. 발주한 선박은 9.3만CBM급으로 척당 7,400만달러임. STL은 VLEC 예약을 위해 10% 보증금을 내야하며, 강제절단은 올해 하반기 예상됨. (TradeWinds)

한진重 회생 발판 마련했지만...조남호 회장 경영권 상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8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행주식의 약 86.3%를 차등감자한다고 공시함.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30.98%)과 조남호 회장(0.50%) 등 대주주 지분은 전액 감자하며, 나머지 주식은 5대 1로 감자함.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 자본금은 5,303억원에서 727억원으로 감소함.

감자차익으로 결손금을 털어내는 구조여서 한진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감자 이후 완전 자본잠식으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한진중공업에 약 6,800억원 규모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을 낮춰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임. 또 채권단은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 약정 기간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함. (뉴스1)

LNG newbuilding orders for 2019 kick off on a high note

2019년 1~2월간 LNG선 신조선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총 13척이 발주되었고, 그 중 신규계약이 7척에 달함. 또한 삼성중공업이 지난주에 체결한 LNG선 4척의 선가는 척당 1.93억달러로 기존 대비 높았음. 관계자는 LNG 시황을 고려하면 옵션으로 보유한 신조선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TradeWinds)

두산밥캣, 북미 딜러 미팅 개최..."발상의 전환으로 시장 리드"

두산밥캣은 북미지역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딜러미팅을 2월 25~28일간 개최함. 딜러미팅은 회사의 중장기 사업방향과 비전을 딜러들과 공유하고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리임. 이번 행사에서 두산밥캣은 3대 과제로 1) 주력제품 3종의 북미 점유율 1위 기록, 2) 시장 커버리지 확대, 3) 혁신을 선정함. (뉴스1)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3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